

# 임상실습을 경험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간호에 미치는 영향

임세미<sup>1</sup>, 염영란<sup>2\*</sup>

<sup>1</sup>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Effect of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Students in the Region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emi Lim<sup>1</sup>, Young-Ran, Yeo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 정도를 파악하고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2022년 05월 02일부터 05월 20일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ANOVA, Games-Howell test,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인간중심간호는 공감능력( $r=.57, p<.001$ ), 의사소통능력( $r=.63, p<.001$ )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beta=.44, p<.001$ ), 공감능력( $\beta=.30, p<.001$ ), 임상실습만족도( $\beta=-.13, p=.028$ ) 순으로 총 변화량의 49.8%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및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studen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son-centered car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from 207 students in the 3<sup>rd</sup> and 4<sup>th</sup> grades of the nursing college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G city, from May 2 to 20, 2022.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Games-Howell test,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tatistically, person-centered care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r=.57, p<.001$ )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r=.63, p<.001$ ). Influencing factors on person-centered care were communication competence ( $\beta=.44, p<.001$ ), empathy( $\beta=.30, p<.001$ )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13, p=.028$ ) accounting for 49.8% of the total change. Based on this results, in order to improve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y and to provide active feedback through pre and post evaluation to increas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Person-centered care

### 1. 서론

COVID-19 대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의 변화, 환자의 치료환경, 사회적 고립 등 보건의료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과거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개인의 건강과 삶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중심간호(person-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Received July 4,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Revised August 18,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centered care)가 대두되고 있다[1].

인간중심간호란 돌봄 제공자가 대상자의 기호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함으로써 자율성, 자존감 및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인식과 실천을 의미한다[2]. COVID-19 상황에서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중요성 및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직접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 중 인간중심간호는 대상자와 소통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1],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3].

전국의 간호학과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인문사회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4].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20%, 심리학 교과목 14.7%, 인간발달 교과목 개설이 12%를 차지하고 있어[4] 간호대학생들의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3, 4학년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5] 이는 인간중심간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중심간호는 개별화된 돌봄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중심적 접근방식으로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 및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7]. 보건의료계열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부 교과과정에 인간중심적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추세로[8, 9] 간호교육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이나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은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0, 11]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려 이해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말한다[12].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높여 대인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어[13],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핵심적인 요소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를 만나고 직·간접 간호를 경험하기에 이들의 공감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공감 관련 주요 변수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14]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자 한다.

의사소통능력 또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중심

간호 역량과 관련이 깊은 변수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의사소통기술을 필요로 하며[1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및 문제해결능력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6].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임상실습 시 대상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7].

최근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18, 19], 대인관계능력[18, 20], 사회적 지지[20], 공감능력[10, 11, 19], 마음챙김[11], 돌봄효능감, 간호전문직관[21] 등 다양한 요인이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즉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병합하여 인간중심간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인간중심간호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간호는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답할 수 있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0.10 program를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 관련 선행연구[10]를 근거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가 178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탈락한 설문 없이 총 207명의 설문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연령, 종교 유무,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본인의 입원경험 유무, 가족의 입원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치료 경험이 있을수록 높고[22],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자에게 맞는 인간중심간호를 제공하는 것[23]으로 확인되었기에 일반적 특성에 입원경험 유무를 포함하였다.

####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Hojat 등[24]이 개발하고 Kang[25]이 번안한 한국판 의료인용 제퍼슨 공감척도(Korean Version of Jefferson Scale of Empathy-HP-version: K-JSE-HP)를 Rhu와 Bang[26]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으로 관점 수용요인, 동정적 치료요인, 환자의 입장에 서기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1, 3, 6, 7, 8, 11, 12, 14번은 부정문항으로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hu와 Bang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2.3.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et al[27]이 개발하고 Hur[28]가 개념을 추가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5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10, 11번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2.3.4 인간중심간호

인간중심간호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Lee[29]가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5 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관계성, 총체성, 존중, 개별화, 임파워먼트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9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2년 05월 02일부터 05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google 폼에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한 후 URL로 접속하여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수업에 참여하는 취약한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의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 주소를 보냈다. 연구의 목적, 연구의 진행절차, 대상자의 비밀보장, 연구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작성에는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도록 설명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분석은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와 Games-Howell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 132명(86.0%), 남성 29명(14.0%)이었다. 학년은 3학년 118명(57.0%), 4학년 89명(43.0%)이었다. 연령은 26세 이하가 151명(72.9%), 종교는 ‘없다’ 150명(72.5%)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119명(57.5%), ‘보통이다’ 84명(4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 126명(60.9%), ‘보통이다’ 73명(35.2%)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입원 경험은 ‘있다’ 112명(54.1%), 가족의 입원 경험은 ‘있다’ 171명(8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29 (14.0)	
	Female	132 (86.0)	
Grade	3rd	118 (57.0)	
	4th	89 (43.0)	
Age (yr)	≤26	151 (72.9)	26.15±7.03
	≥27	56 (27.1)	
Religion	Yes	57 (27.5)	
	No	150 (72.5)	
Satisfaction on major	Good	119 (57.5)	
	Moderate	84 (40.6)	
	Bad	4 (1.9)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Good	126 (60.9)	
	Moderate	73 (35.2)	
	Bad	8 (3.9)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12 (54.1)	
	No	95 (45.9)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71 (82.6)	
	No	36 (17.4)	

**3.2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7점 만점에 평균 5.22±0.87점 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4±0.54점 이었고 인간중심간호는 5점 만점에 평균 4.15±0.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centered care** (N=207)

Variables	M±SD	Min	Max	Range
Empathy Ability	5.22±0.87	3.67	7.00	1-7
Communication Competence	3.84±0.54	1.60	5.00	1-5
Person-centered Care	4.15±0.62	1.60	5.00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정도는 전 공만족도(F=7.4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전공만족도는 ‘ 좋음’이 ‘나쁨’보다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중심간호 정도는 임상실습만족도(F=12.5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 후분석결과 임상실습만족도에서 ‘ 좋음’이 ‘보통’이나 ‘나쁨’보다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egree of person-centered car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SD	t/F(p) post hoc
Gender	Male	29 (14.0)	3.96±0.72	-1.75 (.082)
	Female	132 (86.0)	4.18±0.60	
Grade	3rd	118 (57.0)	4.19±0.69	1.06 (.292)
	4th	89 (43.0)	4.10±0.52	
Age (yr)	≤26	151 (72.9)	4.20±0.65	1.96 (.052)
	≥27	56 (27.1)	4.01±0.54	
Religion	Yes	57 (27.5)	4.24±0.57	1.25 (.213)
	No	150(72.5)	4.12±0.64	
Satisfaction on major	Good <sup>a</sup>	119 (57.5)	4.27±0.55	7.48 (.001) a)b
	Moderate <sup>b</sup>	84 (40.6)	4.00±0.60	
	Bad	4 (1.9)	3.47±1.72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Good <sup>a</sup>	126 (60.9)	4.31±0.53	12.56 (.000) a)b,c
	Moderate <sup>b</sup>	73 (35.2)	3.93±0.62	
	Bad <sup>c</sup>	8 (3.9)	3.66±1.08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12 (54.1)	4.13±0.59	-0.59 (.557)
	No	95 (45.9)	4.18±0.67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71 (82.6)	4.17±0.58	0.83 (.407)
	No	36 (17.4)	4.07±0.82	

† Games-Howell test

**3.4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간중심간호 정도는 공감능력(r=.57, p<.001), 의사소통능력(r=.6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centered care** (N=207)

Variables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Person-centered Care
	r(ρ)	r(ρ)	r(ρ)
Empathy Ability	1		
Communication Competence	.57 ( (.001)	1	
Person-centered Care	.57 ( (.001)	.63 ( (.001)	1

**3.5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인간중심간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 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가변수 처리 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의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06으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64~0.69로 0.3이상 1.0이하였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43~1.55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4.93, p<.001$ ) 수정된 결정계수는 .49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 $\beta=.44, p<.001$ ), 공감능력( $\beta=.30, p<.001$ ), 임상실습만족도( $\beta=-.13, p=.028$ ) 순으로 총 변화량의 49.8%를 설명하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person-centered care**  
(N=207)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12	0.26		4.35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0.51	0.07	0.44	7.15	<.001
Empathy Ability	0.22	0.04	0.30	4.99	<.00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oderate)	-0.17	0.08	-0.13	-2.21	.028

$R^2=.513, Adj. R^2=.498, F=34.93 (p<.001)$

Dummy variables: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reference=Good)

####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와 함께 하는 인간중심간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7점 만점에 평균 5.22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평균 5.42점[30]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대학생 대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46점[31], 3.47점[32], 3.48점[11]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공감은 사회적 환경과 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33]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74점[5]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간호대

학생 1, 2학년을 포함한 연구에서는 3.24점[31]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임상실습에서의 인수인계 경험은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34]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임상실습에 영향을 주므로[5] 체계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힘써야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는 5점 만점에 평균 4.15점이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3.91[20] 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는 3.75점[35],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으로 3.52점[36]으로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시간압박감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37] 나타나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증점으로 임상실습에 임하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인간중심간호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좋은 경우에 나쁜 경우보다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가 좋은 경우에 보통 또는 나쁜 경우보다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ng 등[11]의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ark과 Wool[1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인간중심간호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38] 지지하는 내용으로 저학년부터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3, 4학년 간의 인간중심간호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에서는 4학년의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일 지역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일 지역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중심간호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간중심간호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0] Park과 Woo[1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중심간호 역량이 공감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의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임상실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39]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10, 11, 19, 39, 40]를 통해 공감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간호근무환경이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35] 토대로 임상실습만족도가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현장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여 공감능력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및 적응을[41]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부적응적 행동조절을 돕는 적응적 반응인 마음챙김이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어[11] 간호대학생들에게 마음챙김과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간중심간호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 정도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인간중심간호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간중심간호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로 설명력은 49.8%이었다. 본 연구결과 인간중심간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교감하면서 공감능력을 끌어내고 이를 임상실습에 적용시켜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간중심간호 측정도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REFERENCES

- [1] B. C. Vladeck et al. (2016). Person-centered care: A definition and essential ele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4(1), 15-18. DOI : 10.1111/jgs.13866
- [2] M. K. Flesner. (2009). Person-centered ca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long-term care.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24(4), 273-276. DOI : 10.1097/NCQ.0b013e3181b3e669
- [3] H. Sagong & G. E. Lee. (2016). Person-centered ca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4), 309-318. DOI : 10.12799/jkachn.2016.27.4.309
- [4] Y. M. Jun, E. Cho, & Y. J. Kim. (2016). Current status and challenge of domestic nursing education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 Korea.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1(1), 137-163.
- [5] J. S. Park & J. H. Lee. (2018).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depress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254-262. DOI : 10.5762/KAIS.2018.19.10.254
- [6] E. Hansson, E. Carlström, L. E. Olsson, J. Nyman, & I. Koinberg. (2017). Can a person-centred-care intervention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BMC Nursing*, 16(9), 1-12.

- DOI : 10.1186/s12912-017-0206-6
- [7] H. Gyllensten, I. Koinberg, E. Carlström, L. E. Olsson, E. Hansson Olofsson. (2019). Economic evaluation of a person-centred care intervention in head and neck oncology: Result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upport Care Cancer*, 27(5), 1825-1834. DOI : 10.1007/s00520-018-4436-2
- [8] S. Rosewilliam, V. Indramohan, R. Breakwell & J. Skelton. (2020). Learning to be patient-centred healthcare professionals: how does it happen at university and on clinical placements? A multiple focus group study. *MedEdPublish*, 9(1), 1-17. DOI : 10.15694/mep.2020.000053.1
- [9] H. L. Moore, A. Farnworth, R. Watson, K. Giles, D. Tomson & R. G. Thomson. (2021). Inclusion of person-centred care in medical and nursing undergraduate curricula in the UK: Interviews and documentary analysi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04(4), 877-886. DOI : 10.1016/j.pec.2020.09.030
- [10] J. Y. Park & C. H. Woo. (2022).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48-56. DOI : 10.5977/jkasne.2022.28.1.48
- [11] H. K. Chang, Y. J. Do, S. M. Han, & B. R. Kim. (2021). Relationships amo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empathy, mindfulnes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29(2), 97-105. DOI : 10.17547/kjsr.2021.29.2.97
- [12] Y. Lee & G. A. Seomun.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Applied Nursing Research*, 30, 76-82. DOI : 10.1016/j.apnr.2015.09.007
- [13] J. I. Kim. (2020).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286-295. DOI : 10.5762/KAIS.2020.21.6.286
- [14] S. Hong. (2020).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empathy of Korea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11(5), 369-383. DOI : 10.22143/HSS21.11.5.27
- [15] E. Park & J. Choi. (2020). Attributes associated with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43(5), 511-519. DOI : 10.1002/nur.22062
- [16] J. J. Yang. (2020).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4), 217-228. DOI : 10.21097/ksw.2020.11.15.4.217
- [17] M. K. Cho & H. Jeong. (2018).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39-547. DOI : 10.15207/JKCS.2018.9.11.539
- [18] M. Lim. (2020).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3), 35-43. DOI : 10.22678/JIC.2020.18.3.035
- [19] Y. J. Do, J. Y. Ahn, & H. K. Chang. (202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toward empathy, self-compassion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98-107. DOI : 10.5762/KAIS.2022.23.1.98
- [20] I. Y. Cho, J. Y. Yun, & H. Kim. (2021). Factors affecti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for senior nursing students: Focused on King's dynamic interaction system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8), 357-367.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1.12.8.357
- [21] J. Y. Yun, I. Y. Cho, & S. J. Park. (2022).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caring efficacy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6(4), 718-729. DOI : 10.33097/JNCTA.2022.06.04.718
- [22] M. O. Kang.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7, 207-238. DOI : 10.35504/kph.2015..47.008
- [23] E. H. Park. (2018). *Factors related to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24] M. Hojat, S. Mangione, T. J. Nasca, M. J. M. Cohen, J. S. Gonnella, & J. B. Erdmann. (2001). The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2), 349-365. DOI : 10.1177/00131640121971158
- [25] W. S. Kang. (2007). *An investigation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physician empathy rating scal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26] H. R. Ryu & K. S. Bang. (2016)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empathy scale for health professionals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2), 207-214.
- [27] R. Rubin, M. Martin, S. Bruning, & D. Power.

- (199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In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 [28]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9] J. J. Lee. (2018). *Development of Person Centered Nursing Assessment Tool*. Doctoral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 [30] H. S. Choi, K. A. Kim, S. B. Lee, & H. Joung. (2020). The effects of empathy and gender role identity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3(3), 41-50. DOI : 10.34250/jkccn.2020.13.3.41
- [31] N. H. Kim.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735-744. DOI : 10.21742/AJMAHS.2018.06.84
- [32] E. J. Kim & E. J. Chung. (2017). The influence of empathy ability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tendency and helping behavior -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2), 592-601. DOI : 10.5392/JKCA.2018.18.02.592
- [33] E. Lee. (2017). A study on empathy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empathy ability: with the focus 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course <Homo empathicus: communication, empathy, trus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JOEC)*, 23(5), 149-168. DOI : 10.24159/joec.2017.23.5.149
- [34] H. S. Oh. (2020).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and experience of handover on self-efficacy of handover report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4), 321-331. DOI : 10.21184/jkeia.2020.6.14.4.321
- [35] J. Y. Ahn & Y. Eun. (2021). The effect of nursing competence on patient-centered care among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3(2), 134-144. DOI : /10.7475/kjan.2021.33.2.134
- [36] J. Kang & Y. M. L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for intensive care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2(2), 73-84. DOI : 10.34250/jkccn.2019.12.2.73
- [37] N. Y. Yang, S. B. Choi, J. E. Yoon, & S. M. Bae. (2021). Influence of time pressure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patient safety care activities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28(1), 49-58. DOI : 10.22705/jkashcn.2021.28.1.49
- [38] K. S. Cho.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27(2), 142-152. DOI : 10.5953/JMJH.2020.27.2.142
- [39] Y. Lee & Y. Kim. (2021). Influencing factors on performance of person-centered car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 ecologic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3(5), 522-531. DOI : 10.7475/kjan.2021.33.5.522
- [40] G. Y. Kim & H. Y. Jang.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among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Nursing*, 23(1), 13-23. DOI : 10.17079/jkgn.2021.23.1.13
- [41] H. O. Kim, H. J. So, S. Y. Jeong et al. (2021). The effect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who took simulation class on the problem-solving skill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2), 155-166. DOI : 10.5392/JKCA.2021.21.12.155

##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21년 4월~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nccsemi@gmail.com

##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9년 9월~현재 : 조선간호대 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pseudoan@naver.com